



남구 국비 등 10억 투입
옛 주민센터 리모델링
내년 상반기 개관

‘이강하 미술관’ 문 연다



‘영산강과 어머니’

유족 500여 작품 기증... 전시관·체험실 등 조성

광주시 남구 양림동을 걷다 보면 정음성거리, 이장우·최승호 가족, 팽귄마을 등 사색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문화공간들을 만날 수 있다. 매년 가을 열리고 있는 인문학축제 ‘굿모닝 양림’은 시낭송·음악 공연이 주를 이루며 양림동 분위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곳곳에 자리잡은 미술관·갤러리는 역사문화마을을 만드는 데 한몫하고 있다. 배동신, 황영성, 우제길, 이강하 등 많은 화가들을 배출한 양림동에는 한희원 미술관, 양림미술관, 515갤러리가 발길을 모으고 있다. 내년에는 ‘이강하 미술관’(가칭)이 문을 열어 양림동 문화향기를 더욱 전하게 할 예정이다.

광주시 남구는 국·시비 등 예산 약 10억 원을 투입, 옛 양림동주민센터 건물을 리

모델링해 ‘이강하미술관’을 내년 개관한다고 밝혔다.

미술관은 이강하 유족이 작품 약 500점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남구에 전하며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2층(전체 400㎡) 규모로, 전시실을 비롯한 회의실, 체험실 등을 갖춘다. 1층에는 방문객들이 잠시 쉬 수 있는 카페테리아도 조성된다.

이번달 설계 용역이 끝나는 대로 공사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개관할 예정이다.

남구는 추후 유족측과 공식적으로 MOU를 체결하고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이강하 작품 상설전시 뿐 아니라 지역작가 기획전도 열고, 영암 하정음미술관 등 다른 미술관들과 교류전도 구상하고 있다.

영암에서 태어난 이강하 작가는 양림동

에서 약 30년간 머물며 작품활동을 했다. 무등산과 영산강, 가족을 소재로, 역사적 한과 통일을 향한 염원을 사실주의적 방식으로 캔버스에 담았다. 화집 5권을 발간하고, 개인전 8회, 그룹전 100여회에 참여하는 등 많은 작업량으로 유명하다.

또 광주일보에 1993년 중남미, 1997년 인도 등 두차례 여행 특집을 실는 등 지역 언론에 해외 역사와 문화를 독자들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조선대 미술교육과 1학년이었던 1980년 5·18때에는 시민군으로 활약하며 1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2년여 지명수배를 당했다. 5·18기념재단 회원, 광주시체육회 펜싱협회 이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아들 이조흠씨도 ‘2016광주비엔날레 포트리오 리뷰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작가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자화상’

신세계미술제 대상 진훈 개인전

‘수동적 풍경의 소’ 24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제16회 신세계 미술제 대상 (2014)을 수상한 진훈 작가가 ‘수동적 풍경의 소’를 주제로 24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진 작가는 화려한 시각문화가 범람하는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매체인 회화가 추구해야 할 길에 대해 진지히 탐구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도심 속 우뚝 솟아있는 건물, 흔히 마주치게 되는 가로수, 공원, 횡단보도, 다소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도시인을 담은 작품 30여점을 출품한다. 도로와 가로수가 나란히 펼쳐진 ‘평행선’, 네모난 상자를 모아놓은 듯한 아파트를 그린 ‘블록’, 고개를 숙이고 도로를 건너는 사람을 등장시킨 ‘On the way’ 등이다.

진씨는 풍경이 주는 시각적인 아름다움이나 색채 조화를 포기하고 모호하고 나른한 느낌을 주는 방식을 택한다. 사물을 흐릿하게 묘사하고 보라, 진분홍, 청록색을 자주 사용하며 익숙하면서도 낯선 도시 모습을 표현했다.

전주 출신 진씨는 서울대 미술대학 서양화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인전 9회를 열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리며 그리다’(경기도 미술관), ‘김내를 건너온 빛’(루비나 아트센터), ‘달레마의 빨’(일민미술관) 등 다수 기획전전에 참여했다. 문의 062-360-163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block’

천억원 받는다면 살인 하겠습니까

‘노부인의 방문’ 광주 공연... 2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1000억원을 받을 수 있다면 당신은 살인을 저지할 수 있는가?’

극단 ‘사람 사이’가 스위스 극작가 프리드리히 뒤렌마크의 대표작 ‘노부인의 방문’을 무대에 올린다.

21일 오후 7시30분, 22일 오후 5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실연의 아픔을 딛고 고향을 떠났던 차이나시아는 45년만에 큰 부자가 돼 금의환향한다. 그녀는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을 배신했던 옛 애인을 살해하면 1000억 원을 내놓겠다고 제안하고, 사람들은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점점 돈에 현혹돼 사람을 죽이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된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인류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쉽게 타락할 수 있는지, 인간 정신이라는 게 얼마나 나약한 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주인공 차이나시아 역의 유지영씨를 비롯해 최진영, 원광연, 윤희철, 이기인, 이영환, 안윤국, 한종신, 이정진, 정태서, 채운정, 최유정씨 등이 함께한다.

연출과 각색은 극단 대표 송정우씨가 맡았으며 음악감독으로 오영목씨가 함께 했다. 문의 062-670-794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대나무박물관 농축다면 주목하세요

담빛예술창고, 30일까지 기념전... 송필용·한희원 등 참여



송필용 작 ‘대나무박물관-죽녹원에서’

담빛예술창고가 12일부터 30일까지 대나무박물관 기념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송필용, 임의진, 장현우, 이돈홍, 한희원 등 지역 중견작가 5명이 담양과 대나무를 소재로 작업한 회화, 설치, 서예 등 기증작품을 선보인다.

미처 대나무박물관을 방문하지 못했던

방문객들에게 당시 감동을 간접적으로 전해주는 작품들이다.

송필용 작가가 출품한 ‘대나무박물관-죽녹원에서’는 푸른 대나무숲을 배경으로 길게 줄을 서서 견고한 수백 입장객들이 등장한다.

임의진 작가는 담양 특산품을 소재로 사

용했다. ‘달기열매와 백제의 땅 담양’, ‘반고흐와 해바라기의 담양’, ‘포도와 영산강의 담양’ 등에서는 역사, 자연, 농산물이 유쾌하게 어우러진다.

한희원 작가는 ‘담양 가는 길’, ‘담양의 별’에서 서정적 분위기를 연출했고 장현우 작가는 ‘2015세계대나무 총화-세계로 미래로’를 통해 당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또 서예가 학정 이돈홍 선생은 6폭 병풍 작품에 담양에 관한 한시를 썼다.

문의 061-380-348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황영성·박석규·송용·박동민·박종수·신동원·박성현·전희진·정은태

원로작가 9인 특별전

기간: 2016. 10.11(화) - 11.11(금)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박물관갤러리
☎ (062) 222-0072 (예술의거리 서문입구)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외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연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화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